**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해지고 교회도 지탄받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을 보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1년 7월 31일 (토) 제 1835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COVID-19 재확산에도 복음화 열정 뜨겁다!

## RNS, '도쿄올림픽'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음화 전략과 사역 소개

최초의 '재미없는' 올림픽이라는 별명을 얻은 '도쿄올림픽'이 개막됐다.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빌리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텅 빈 경기장에서 경쟁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참가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영적 건강을 돌보는 목회자조차도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다(At Tokyo Olympics, even faith events look different as COVID spikes. Here's how: Religious services for residents of the Olympic Village will be provided virtually due to the pandemic, but Christian evangelistic organizations aren't letting COVID-19 dampen their efforts at reaching the Japanese).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1년 동안 연기된 후 지난 7월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의 다른 모습들은, 참가하고 있는 올림픽 선수 및 팬들의 교류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도 비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COVID-19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본이 도쿄 지역에 4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발생했다.

기독교운동선수협회(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FCA)의 윌 톰슨(Will Thompson) 일본 담당 이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운동선수에게 신앙으로 다가가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편의시설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패, 부상, 실망 또는 성취감이 닥쳤을 때 이 선수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봉사하는 방식으로 진정 그들과 관계를 맺을 적절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 격려와 지도가 필요한 동료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쟁의 현장 안팎에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난 하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빌리지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및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와 기도 공간이 있는 다종교 센터가 있었다.

도쿄올림픽 빌리지에는 다종교센터도 포함될 것이라고 도쿄 2020 국제커뮤니케이션 팀은 말했다.

Religion News Service에 제공한 위 성명에서 "마을에는 선수들에게 종교 서비스와 기도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다종교센터가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다. "Tokyo 2020은 다종교센터를 계획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종교 및 종교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편의시설들은 COVID-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거 올림픽 기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에 입주한 선수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는 가상으로만 제공될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언론홍보팀이 이메일로 확인했다.

FCA의 톰슨은 따라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동 조직은 이전에 올림픽 게임에서 경쟁하는 기독교 선수들을 위한 영적 코치(chaplaincy)를 지원해 왔었다.

"아직 소수의 공인 종목이 있지만 COVID 제한으로 인해 비상사태 시에만 올림픽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의 모든 목회는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요청 시 Zoom 일대일 약속, Zoom 예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언어와 전통으로 미리 녹음된 영적 메시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도쿄 2020 조직위원회는 또한 올림픽 선수촌 주민들이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종교 또는 종교 센터 목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림픽 경기장에 다종교 기도공간을 설치하고 있다고 커뮤니케이션 팀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에 한 일본조직(Yasu Project)은 올림픽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들이 매일 5번의 기도를 드리는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개조된 트럭인 "Mobile Mosque"를 올림픽 경기장 밖에 주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이러한 계획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근에 도쿄가톨릭 대교구는 지난주 비상사태 속에서 교회 방문객을 금지하고 올림픽을 위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선수, 지원 스태프 및 팬들의 영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계획(대면적/신체적 종교 활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사 및 기타 경건 동영상을 가톨릭 운동선수들에게 대신 여러 언어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의 전도 역시 기존의 올림픽 대회와는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전도/선교 팀들은 전염병 제한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쿄 거리 및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과 사역 활동을 개발했다.

〈3면으로 계속〉

제 24차 PCA 한인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신임 총회장에 김지성 목사 선출

## 제 24차 PCA 한인총회, PCA 48차 총회와 함께 열려

미국장로교회(PCA) 제 48차 총회 및 한인총회(PCA-CKA) 제24차 총회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약 3000명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PCA-CKC 수련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인총회를 호스트 한 수도노회 노회장 차용호 목사는 "코로나19로 총회 준비가 쉽지 않았으나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의 지원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류응렬 목사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팬데믹도 이길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으나 올해는 예년(2000명 정도)보다 더 많은 수가 참석했다. 한인 목회자도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PCA-CKC 총회에서 선출된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지성 목사(서남노회, 글로발선교교회) △수석부회장 이인승 목사(남부노회) △상임총무 박수현 목사(서북) △부총무 서경재 목사(동남) △서기 권승룡 목사(서남) △부서기 남성우 목사(중부) △회계 신정훈 장로(서남) △부회계 이범선 장로(수도) △감사 이기섭 목사(동부), 홍지선 목사(서북), 성기중 목사(동북부).

이어 지난 7월 7일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 임원회를 열고 △실행총무로 박상목 목사(서남 OC 노회)를 선임했으며, 서남노회와 서남 OC노회 주관으로 갖게 되는 제25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는 2022년 6월에 Birmingham(AL)에서 열리는 제49차 PCA 총회와 함께 갖기로 결의했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류응렬 목사

4면
푸른초장
김홍석 목사

16면
인터뷰
조은아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KAPC)의 총회 인준 신학교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 입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장학금 지급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21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및 학사일정 ●

| | | | |
|---|---|---|---|
| 대학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여 교 역 학 | 3년 | |
|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 | | 세례교인 |

| | | | |
|---|---|---|---|
| 대학원 | 목회학석사 (M.Div)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석사 (M.R.E) | 2년 | |
| | 선교학석사 (M.Miss) | 2년 | |
| | 신학석사 (Th.M) | 2년 | M.Div 학위 학력자 |

◇신학석사(Th.M) 과정은 설교학 전공으로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개설됩니다.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21년 9월 3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21년 9월 4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개 강 부흥회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8시
❺ 신입생 등록 기간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6시
❻ 수 업 기 간 : 2021년 9월 7일(화)–12월 16일(목)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917)733-7387

● 발행인 칼럼 ●

# "함께"의 미학(美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일 년을 연기했건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그에 따르는 반대운동 등으로 도쿄 올림픽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개막된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경기가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 그 기원이 있고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일으켰다. 그는 1894년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Faster, Higher, Stronger)"를 올림픽의 구호로 내세웠다. 지난 127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올림픽의 구호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 함께(Together)"이다. 오랜 시간 동안 "빠름"의 가치가 중요시되던 올림픽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함께"의 소중함을 품게 된 것이다.

"빠름"의 가치를 노래하는 일은 이미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도 있었다. 아이라니하게도 그 고대 그리스에 "빠름"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갈파한 사람이 있었다. 노예 출신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아이소프스이다. "이솝 우화"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있지 않은가. 토끼는 빠른 경주자였다. 하지만 거북이가 마지막에 먼저 도착한 선착자가 되었다. 이 우화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꾸준한 성실"이 "교만한 빠름"을 이긴다는 교훈은 분명히 담고 있다. 그 이솝 이야기 가운데 "곰과 나그네"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어느 날 두 친구가 같이 여행을 떠났다. 두 친구가 큰 숲속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눈앞에 한 마리의 곰이 나타났다. 한 친구는 잽싸게 바로 근처의 큰 나무에 기어올랐지만 다른 친구는 도망치지 못했고 그냥 땅에 쓰러져서 죽은 척했다. 곰은 죽은 척하는 친구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있다가 잠시 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 위로 도망친 친구는 살았다 싶어 내려왔다. 그리고 쓰러져 친구에게 "곰이 아까 너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던 것 같은 데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물었다. 쓰러져 있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곰이 내게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매정한 친구와는 빨리 헤어지라고 말했어." 이솝은 "토끼와 거북이"에서 "빠름"의 가치를 경계하였고 "곰과 나그네"에서 "재빠름"의 질타와 "함께"의 미학(美學)을 강조하였다.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보스턴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 화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들과의 통화보다는 18개월 된 손녀와의 영상통화가 우선이었고 전부였다. 나는 "빨리"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데 18개월의 손녀가 계속 장난을 건다. 손녀가 "어흥" 하면 내가 "아구 무서라" 라고 하며 숨는 행동을 해야 한다. 손녀는 좋다고 하며 내 바쁜 사정은 모른 채 계속 "어흥" 한다. 손녀는 "빠름"에 대한 가치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함께"의 즐거움은 너무 잘 안다. 아이가 "빠름"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함께"가 없이는 살지 못하리라. 왜 아이뿐이겠는가. "함께" 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친히 참여하시는 탁월한 삶의 방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 "함께"에는 두려움이 없다. "함께"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함께"에는 놀라움과 즐거움 넘친다. "함께"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른다. 이토록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함께"의 미학(美學)은 미학 중의 미학이 아닐까.

#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 BBC, 일상이 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단 소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억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00만 명이 사망했다.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16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친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과학자들 사이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계속 머물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Corona will never go away." How to deal with it?).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지난 1월 전 세계 100여 명의 면역학자와 바이러스학자, 건강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약 90%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계속해서 유포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인류와 질병과의 싸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몇 가지 특정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코로나19를 퇴치하지 못하는 이유

천연두는 퇴치된 희귀 질병 중 하나다. 전염병 퇴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WHO는 지금까지 2가지 바이러스성 질병인 천연두와 우역(소 전염병)에 대해서만 공식적 퇴치를 선언했다. 고대 질병인 천연두만이 지리적 분포와 도달 범위 면에서 코로나19와 비교될 수 있다. 천연두는 1980년대 이르러 박멸될 때까지 20세기에 최대 5억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는 백신 개발 등의 독특한 환경들이 '천연두 퇴치'에 도움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이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런던 위생 및 열대 의과대학 전염병 역학교수인 데이비드 헤이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지 질병을 덜 심각하게 만드는 등 감염 정도를 조정할 뿐이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대 교수인 폴 헌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평생 반복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수 있다.

헤이만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것으로 믿는 많은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사이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유포될 것이란 얘기다.

WHO는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이 독감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산출된 사망자 수와 더불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이만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서 복제되면, 때때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돌연변이 중 일부는 우려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가 다른 수단을 통해 현재보다 덜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에 의해 또는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문에 독성(심각도)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독감처럼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할까?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이러스 입장에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이게 바로 돌연변이가 흔한 이유다.

옥스퍼드대 트루디 랭 글로벌헬스 교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 변이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바이러스는 더 쉽게 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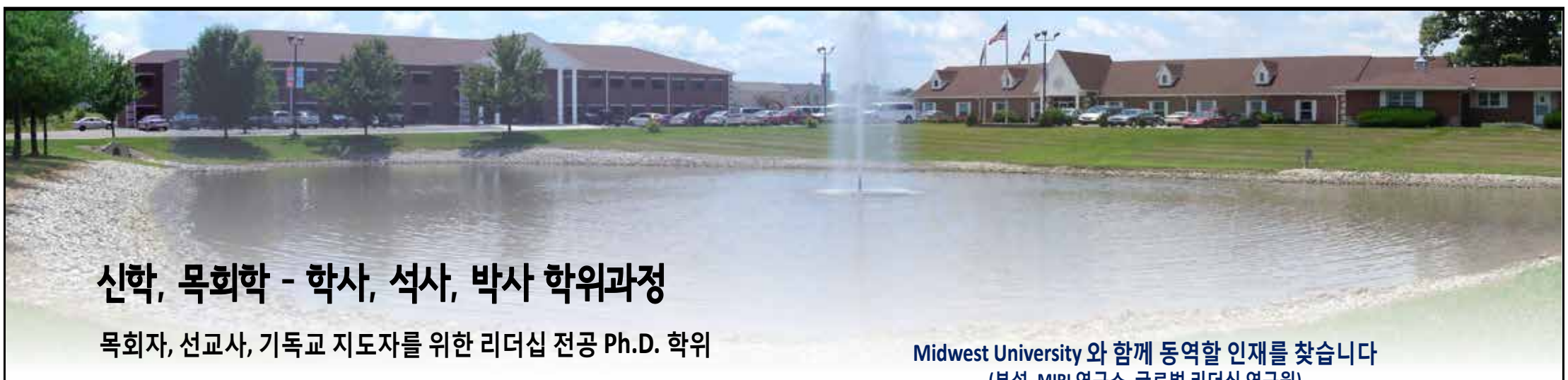
독감 바이러스의 변화는 너무 흔해서 매년 보건기관 네트워크에 의해 독감 백신의 구성이 검토된다.

〈3면으로 계속〉

***독감 같은 풍토병 가능...코로나백신은 변이에도 효과적***
***면역력 측정불가...확산 억제방법으로 마스크 사용 지지***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 ... 복음화 열정 뜨겁다!

〈1면에서 계속〉

남침례교국제선교위원회(IMB)와 FCA는 대회를 앞두고 IMB 선교비디오가 선언하듯이 "일본인은 두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의 약 48%가 신도, 46%가 불교, 1%가 기독교인이라고 미 국무부가 보고했다.

일본 남침례교 선교사인 스콧 브래드포드(Scott Bradford)는 IMB의 접근방식이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사 중심이 아니라 전략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주일 경기를 거부한 크리스천인 20세기 초 올림픽 육상스타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담은 올림픽 주제의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역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인 리델은 1981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잘 알려져있다는 이점이 있다.

책자 안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한 정보와 선교사들이 대회가 끝난 후 주최할 계획인 후속행사에 대한 초대를 안내하는 QR코드가 있다.

브래드 포드와 다른 선교사들은 기차역에 드나드는 일본인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데 잠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무료 "5분 영어"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올림픽 핀과 기독교 만화를 나눠주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인기 있는 만화예술 형식인 만화(manga)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했다.

톰슨은 "핀 배부/교환은 올림픽 문화에서 큰 일"이라고 말했다. FCA은 신약성경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세 개의 올림픽 핀세트의 생산을 제한했다.

그는 "만들어진 핀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이나 이후에도 복음 대화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CA은 또한 Biblica(구 국제성서공회)와 제휴해 "일본 스포츠 성경"을 제작하고 2만부를 인쇄했다.

톰슨은 "팬데믹은 우리의 배포 방법과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운동선수와 협력해 스포츠클리닉, 캠프 및 다양한 이벤트를 배포의 촉매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자원을 일본 코치와 선수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다양한 교회, 선교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신임 총회장에 김지성

〈1면에서 계속〉

또한 오는 12월 2일에는 내년도 CKC 총회 준비를 위해 버밍햄에서 임원 및 전국 9개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고, CKC 총회가 열리는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를 미리 방문하게 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브라이언 채플 박사(전 커버넌트 신학대학교 총장)가 신임서기에 임명됐으며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 한인수도노회에서 상정한 아시안 차별금지법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됐다.

PCA에는 약 2천여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그중 한인교회는 약 240개, 전체 목회자는 약 5천명, 한인목회자는 700여명이 소속돼 있다. 교단은 한인교회가 미 전역에 9개 노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총회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남장로교(PCUS) 교단이었던 PCA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교단을 탈퇴해 1973년 새롭게 창설한 교단으로, 뉴욕 리디머교회, 버밍햄 브라이어우드교회, 애틀랜타 페리메터 처치가 대표적인 교회이며, 한인교회로는 남가주사랑의교회와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소속돼 있다.

류응렬 목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PCA 교단에 고마운 마음"이라며 "특별히 미국내 전도를 위해 교회개척을 격려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교단의 정책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총회참석 소감을 전했다.

류 목사는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 올바른 개혁신학으로 신학교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2면에서 계속〉

파상풍과 같은 다른 질병들은 일생 동안 부스터 잽(추가 접종)을 필요로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적어도 4가지 주요 변이를 만들어냈다. 이 중에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돼 현재 유럽과 아시아 및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염력 높은 델타변이도 포함된다.

통계에 따르면 백신은 델타변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영국 공중보건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6월 사이에 병원에 입원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82%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겨울을 앞두고 세 번째 예방주사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3000만 명이 이 추가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추가 접종이 항체를 증가시키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과학자들도 코로나19 백신의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백신들이 상당히 새롭고 연구원들이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이만 교수는 "추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이고, 따라서 현시점에서 추가 백신을 맞을지 말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까?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만큼 논란이 된 조치는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의 행동과학자 크리스티나 그라버트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봉쇄조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 권고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사용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4월에 해제된 가운데 이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74%에서 63%로 떨어졌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중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장소에선 예의상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시 론

# Safety Missions Vaccine Project(SMVP)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교사들이라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여러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결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천국에서는 천군천사들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겠지만 땅 위의 가족과 우리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아쉬움을 남깁니다. 선교사님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하는 것이 '선교사 백신접종 프로젝트'(SMVP) 운동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백신을 맞도록 도와드리는 운동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파이저 백신을 맞도록 권유하고 장년인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에서 섬기는 이동렬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이 일을 시작했고 세계의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과테말라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백신을 맞는 선교사님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가정, 200명 이상이 등록한 상태이고 장차 워싱턴 뿐 아니라 미국 다양한 지역과 한국에서도 이런 백신접종 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과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사역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1회나 2회에 끝나지만 이 사역을 위해 공항에서 선교사님들 픽업하는 것부터 숙소와 엄청난 분량의 식사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머무는 동안 이동을 위해 차량으로 섬기는 일과 다양한 행정 처리 등 많은 봉사자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팔을 걷고 달려오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의 넘치는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힘겨운 가운데 척박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사역에 힘쓰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 즐거운 땀을 흘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 자랑스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은 시대마다 있어왔지만 그 대응에 따라 기독교회는 거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염병이 닥쳤을 때도 많은 크리스천도 감염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읽어보면 감염자들을 바로 격리시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단절시키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감염된 환자를 홀로 두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간호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보며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사랑을 쏟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중세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가톨릭교회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중세 천년을 지배한 가톨릭이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거나 극단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면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은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불어 닥친 팬데믹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냥 앉아서 백신이 해답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백신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은 실로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 문명 발전의 한계를 깨우치는 울림, 세상을 향한 기독교회의 책임, 복음 전파의 시급성 등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과 대응이라 해도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의 자세로 섬기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선교사님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현장으로 달려가서 맡은 사명을 위해 삶을 던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기독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울림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 담임목사 청빙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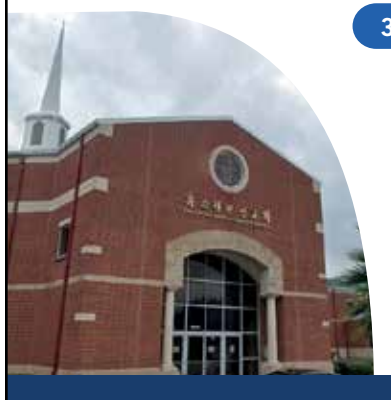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힘

개인이나 국가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힘 있는 나라와 힘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했고 앞으로도 항상 공존할 것이다. 그런데 힘의 역사는 유동성이 많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하게 시작했다가 사라져버린 국가나 개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 큰 노력 없이 힘 있는 자의 부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재력은 덜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아 출중함을 통해 요직을 거머쥐기도 하고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를 힘 있는 자로 세우시고 섭리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힘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섭리하실까?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약한 자를 도우라는 의미라고.... 고로 이 땅의 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힘은 무한정 누리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제1 삼두정치의 한 사람, 크랏수스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부자이었는데, 포브스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2016년) 가치로 202조에 달했다고 한다. 심지어 로마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저도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려야 했는데, 그 많은 돈을 크랏수스는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많은 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즉 세상의 힘은 살아있을 때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다. 죽으면 그 놀라운 힘은 한 순간에 무력하게 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 힘의 실상이다. 그런데 죽어서도 남는 게 있다면 생전에 주어진 힘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준 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힘을 부여해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힘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그 힘을 자신의 교만이나 자랑의 요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힘을 주신 이유는 연약한 이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몇 달 전 이태리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들은 막대한 돈을 자선단체나 특정한 곳에 기부하지만 그 이상의 큰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인다고 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치중한다. 이제 그만 벌어도 될 부자들에게 돈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들지만 막상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는 작은 돈까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 구멍 뚫린 바가지의 담긴 물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빈곤의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검증된 가장 나은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인데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표방함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고 그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정치가들에게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나님께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하 세우신 제도가 있다. 즉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제도다. 경제를 설계하는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도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게 된다.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 불의한 세상에서 용기있는 믿음으로

### 사도행전 16장 35-40절

오래전에 한국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40년간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에 수감됐다면 육십에 누명을 벗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생각 만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본인의 그 사십년의 젊은 인생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무죄하게 수감되어 무척 맞기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미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서 일어난 상황이라 누가 보기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말씀을 대할 때 기적의 옥문이 열리게 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후에 응답받은 것이니까 누구보다 가장먼저 옥문을 나서는 것이 지당한 일일 텐데 옥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수와 그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옥문도 열렸겠다 간수의 온 가정도 전도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옥문을 나설 모든 여건이 준비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동기는 귀신들린 어린 여종 하나를 앞세워 점치는 장사를 하던 주인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어 자유케 해주니 더 이상 주인들의 사업에 이가 없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서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바울 일행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억울한 일보다 크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참고 넘겨 전도의 일에 더 매진하게 하신 걸로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불의하거나 부정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의하게 옥에 갇힌 후에 석방을 위해서 출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흔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옥에서 출옥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출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불의한 일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출옥할 여건이 주어졌지만 출옥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책망합니다.

37절 말씀에 "로마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옥에 가둔 불의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44번 버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44번 버스 운전사 중에서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깡패 두 명이 그 버스에 올라타고 타자마자 운전사에게 시비를 합니다. 시비라기보다는 성 희롱을 하는 거지요.

버스는 가야하는데 보다 못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그 깡패들을 말리려고 앞으로 나와서 야단쳐서 가르치려다가 오히려 많이 맞았습니다. 깡패들이 계속 운전사를 희롱하면서 차를 출발시킵니다. 좀 인적이 드믄 숲이 있는 곳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급기야는 숲으로 운전사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자고 깡패들이 명령합니다. 운전사 아가씨는 울면서 말합니다. 저기 저분 아까 당신들이 때린 그 아저씨를 이 차에서 내리게 하라, 그 사람 내리지 않으면 나는 출발하지 않을 거라고 깡패들에게 말합니다. 기분도 안 좋은 사람인데 안 내리겠다고 하는 그 분을 강제로 차 밖으로 몰아내고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 운전사는 출발합니다. 언덕을 넘어서 이 운전자는 큰 호수가 있는 지역에 다다를 때 전속력으로 호수로 돌진하게 됩니다. 자기도 물론 차에 탄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운전자의 정의로운 심판은 그 차에 탄 모든 승객, 깡패 포함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한 여러분 모두는 살 가치도 없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오늘날도 여러 경우에 우리는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으면 침묵하고 못 본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무언으로 침묵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하철 안에서 흑인들에게 한 여인이 돈도 지갑에서 빼앗기고 추행을 하는데도 아무도 멈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오늘날 우리 뉴욕교계의 불의한 일과 부정한 일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총회 때가 되면 후보들을 등에 업고 마치 장사라도 하듯이 해를 이어가며 금품수수며 마치 어린 여종 하나 데리고 점하는 장사군 들과 같은 행태가 끊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뻔히 누구누구를 알면서도 쉬쉬하며 올바른 정의 앞에 무뎌진 세상의 정치판을 보듯이 같은 부정이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덮고 못 본척해 주는 것이 복음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책망했던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절실한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불의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상관들을 불러서 단단히 야단칩니다. 그런 결과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니" 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인줄 모릅니다. 단단히 야단치고 나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흔히들 예기하듯이 '뭐 한 번 무엇 밟은 셈 치지' 하고 스스로 옥문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 여기 또 오겠나.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다면 번거롭게 상전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사도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입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나찌에 항거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본 훠퍼는 "불의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잠잠합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내가 당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선 철저한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옥에서 나와서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고 그 집이 빌립보교회가 되었으므로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무 잘못 없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당연히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러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지한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고난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내게 위로할 때 정말 위로가 되던 가요?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하는 분들이 위로한다고 나의 목회에 진정한 위로가 되던가요?

엘리스 그레이 라는 분이 쓴 책 "희망을 품은 여인들의 보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엘리스 그레이와 친구가 만나서 식당에서 아주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인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분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나가는데 모습을 보나까 지팡이를 의지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두 여인은 마음에 푸근함을 느끼고 있는데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방금 인사를 건넨 그 부인에 대해서 아는 분인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 웨이트리스는 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 그 여인은 작년에 대단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아픈 그 여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작장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웨이트리스로부터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여인, 불행한 형편에 처해서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불의한 처우를 당하고서도 자기들을 위로하고 간 그 여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준 그 여인에게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줄 때 오히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면저 위로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의 용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hongskim1623@yahoo.com

아는 게 힘이다!
##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아리조나주, 연방정부 추진 CRT(비판적 인종이론) 금지법안에 서명, 통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히 위험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적극 온힘을 다해 반대해야할 이념적 "교육운동" 중 하나가 바로 Critical Race Theory(CRT) 라고 불리우는 비판적 인종이론입니다.

CRT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뼈 속까지 인종차별적인 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며, 개개인의 감정과 인종, 피부색, 성별 등을 내세워 분열을 조장하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기초와 역사를 지우려는 악한 세력들의 시작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CRT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미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막시즘(Marxism)을 숭배하는 사회공산주의 세력들이 미국과 세계를 통제 하려는 목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조용히 숨어 여러 모습으로 그들의 목적을 정치와 교육 안에서 펼쳐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사상이 담긴 독을 사탕 속에 집어넣어 사람들을 무엇으로든(피부색깔, 직업, 권력, 모습 등등) 사람들을 갈라놓음으로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정부에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죽였지만, 지금 미국 안에서는 "정의, 인종차별금지" 라는 명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백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모두가 죽을 죄인들이라는 내용으로 학생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율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왕따 되지 않으려면 백인 학생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합세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마치 동성애를 부추길 때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미국 안에서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버린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반기독교적으로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짓문화로 변했는지, 그런 현실을 인정안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CRT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또 한 번 역사 앞에 결단해야 할, 매우 긴박하게 몰아닥친 현실을 봐야할 때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험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만일 또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더 짙은 암흑시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진보 좌파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부와 동부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CRT를 정책화 하고자 강력히 밀고 있으며, 특별히 공립학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강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던 학부모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 적극 반대운동에 참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수 우파 성향의 주지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주지사 자리에 뽑히도록 내리신 은혜에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지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격려되는 소식이 아닌지 모릅니다.

한 예로, 이번에 아리조나주의 공화당 소속인 Doug Ducey 주지사는 지난 7월 10일 아리조나 주의 지역정부들 안에서 CRT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 아리주나 주는 미 전역에 미국을 공산화 시키는 CRT를 적극 반대함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의회 법안 HB 2906은 "주와 주에 속한 지역 정부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적이든 인종차별, 성차별 혹은 억압자(Oppressor) 등이 이 나라의 '전통적 유산'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거짓 교육 혹은 잘못된 치료 등에 연결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정부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에게 의무화 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CRT 세뇌교육을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31대 25의 투표결과를 통해 CRT를 금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화당에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의원들이 다수라서 감사합니다.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는 "나는 공공 기금을 어떤 인종이 우월하다고 암시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시민들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데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세금을 정치적 논평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진정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듀시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후속적인 내용에는, "학생들은 어느 한 인종, 종족 혹은 성별이 다른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배워서는 안 되며, 또한 그 누구도 앞서 언급한 특성들을 기준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리조나 공화당 주 하원의원인 짐 호프만은 "아리조나주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선언서의 내용인 '사람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Ducey 주지사의 후원과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나의 동료들로 인해 무척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리조나주는 공립학교와 정부 기관에서 CRT 교육을 강제로 가르칠 수 없는 주가 되었으며, 아이다호주와 아칸사스, 테네시, 유타 등이 아리조나 주와 유사한 'CRT 이론을 공립학교와 주정부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단체뿐 아니라 저희와 함께 뛰는 미국 전역의 여러 보수적이며 기독교 신앙을 기초한 단체들 또한 이 CRT의 해악성에 대해 미 전역에 알리며 CRT를 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주정부 법안들을 계속 반대하고 막아내는데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수적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정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과 주지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상황들에 합당한 기도와 지지 혹은 거부의사를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며,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시킬뿐더러 이 나라까지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사랑으로 전하고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십 년 전만 해도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석유와 세일가스 산유국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발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의 Kwon 권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유국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 공급을 절대 금하는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가스와 석유가 없어 다른 나라를 통해 공급받기 위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스와 석유를 수출하는 기적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던 골다 메이어 총리는 주변 아랍국가들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반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를 발견한 것은 소련에서 이민 온 한 유대인 청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루스킨이란 이름의 이 청년은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 석유채굴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와보니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만큼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신33:24, 아셀지파 지역을 18년간 시추 끝에 석유 발견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한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란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름 나온다는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나온다는 말이 성경의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oil)에 잠기리로다"(신33:24). 그렇다 여기구나! 이 말씀을 읽자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석유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18년간 그는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에 드디어 석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도시인 하이파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은 읽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감추인 만나, 감추인 진리의 석유를 캐냅시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 "현지 사역 이양"

최근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은 것은 사역의 현지 이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역지에 도착하면서 바로 미래의 계획 속에 출구 전략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 이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현지 지도력 개발입니다.

선교 사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모금한 재정이 얼마나 많이 현지에 투입되느냐로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시간 보내면서 키워낸 현지 제자가 얼마나 선교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세워진 사역들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함입니다.

물론, 너무 빨리 떠나면 그 사역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내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세워진 교회든, 학교든, 훈련 사역이든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현지 지도력 개발은 선교사의 사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사람 키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현지에 있는 학교나 교회의 재산권이 현지에서 믿을만한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법인체를 만들고 건강하게 현지인에게 책임지는 재정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된다면 그 사역은 미래에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한국의 숭실대학이나 연세대학이 처음 선교사가 시작했다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어받으면서 훨씬 크게 확장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는 세워진 현지의 사역을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이것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교회나 단체에 넘겨주고는 그 교회가 물주가 되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지에 세워진 학교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타국에 재정이 빵빵한 물주가 있다는 생각에 현지인들은 헌금도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사역은 폐허가 되는 경우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신도 사역을 확장하기 원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물주에게 연락하고 기대는 마음은 영적인 활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 보다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미래 지향적이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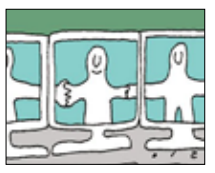
그렇게 키워낸 사역자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과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힘을 줄 때 더 사역을 잘하게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은 그 지역을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지속할 지도자를 가르치고 떠났지만 계속 편지와 방문으로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재정을 나누기보다는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역 이양이 됩니다.

사역 중에 아픔도 같이하고 기쁨도 나눌 때 배가 되는 일들은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진행할 때 더 공감이 되고 깊은 영성을 지속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지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英 목회자 43% "온라인 소통으로 성도 늘어"



영국의 목회자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기독교 전문 일간 처치타임스는 영국 보험회사인 '이클리지에스티컬 인슈어런스(Ecclesiastical Insurance)'가 실시한 조사에서 교회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발생 후 새로운 채널을 사용해 성도들과 소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천주교 등 113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처치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공개 행사와 가상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줌을 처음 사용했다는 목회자는 1093명 중 90.2%인 986명이었다.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성도들과 소통했다는 목회자도 각각 443명(40.5%), 364명(33.3%)이나 됐다.

반대로 팬데믹 기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역자도 57명이나 됐다. 전문성 부족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험 부족과 장비 부족도 각각 15명, 11명이었다.

응답자 1132명 중 65%(738명)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영상 등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성도들의 교회 출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통으로 출석 성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교회 사역자는 1108명 중 43.5%(482명)나 됐다. '상당한 증가'는 172명, '약간 증가'는 310명이었다.

### 쿠바그리스도인들, 반정부시위에 금식과 기도

카리브해 공산국가 쿠바에서 이례적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62년 만으로 경제난 속 생활고로 촉발됐다. 최근 쿠바 정부가 온·오프라인마저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다.

CT에 따르면 현지 쿠바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7일 교파를 초월해 '조국을 위한 전국적 기도와 금식의 날'에 참여했다. 존경받는 쿠바복음주의동맹(Cuban Evangelical Alliance) 지도자인 알리다 렌베즈 목사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쿠바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의 임재를 누렸다. 금식은 폭우와 뇌우로 중단됐지만 이후 잔잔한 평화를 맛보았다. 나는 하늘에 그려진 아름다운 쿠바 지도를 보았다. 내 느낌은 하나님이 이날을 기뻐하시고 쿠바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다. 시편 14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현재 쿠바는 식품과 의약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때 찬사를 받았던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 쿠바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심문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CT는 밝혔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그전까지 쿠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발성을 띠고 있다.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겸 공산당 총서기는 시위 직후 미국에 혼란의 책임을 돌렸다. 미국 제재 탓에 경제난이 심화했고 미국 내 쿠바인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TV에 직접 출연해 친정부 시위를 유도하면서 시위 참여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군복과 사복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시위대를 구타하고 수백 명의 시민을 구금하기도 했다.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나서고 있다. 일부 민주·인권 운동가들도 행진에 합류했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이를 구실로 장기형을 선고할 것을 우려해 집에 머물렀다고 CT는 전했다.

쿠바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회 지도자는 시위대에 동조하면서도 왜 자신이 집에 머물기로 했는지 밝혔다. 그는 "마음을 다해 나가고 싶었지만 몇 달 동안 보안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당국은 나를 체포할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참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960년대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비롯한 쿠바의 종교단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이에 대한 반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톨릭주교회의를 비롯해 쿠바복음주의연맹, 쿠바감리교, 하나님의성회를 포함한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정부의 폭력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평화적 권리를 선언했다. 특히 복음주의 교단의 발언은 더욱 강력해졌다.

지난 18일 쿠바 하나님의성회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쿠바 전역에서 폭력적 충돌을 촉발한 대통령의 '전투 명령' 선언을 거부한다. 모든 시민의 포용과 평등을 선언하는 정부는 쿠바인 간의 대결이 아닌 대화를 촉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온전한 분별이 결여되고 국민을 열광시키는 구호와 외침이 국가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완전한 혼란과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쿠바 정부는 92년 개헌을 통해 쿠바를 '세속국가'로 선포하면서 종교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자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에 따르면 2010년까지 쿠바 인구의 56.5%가 기독교인이었다. 지금은 6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신교회는 그동안 분열 양상을 거듭했으나 2019년 쿠바복음주의연맹을 출범시켰다.

### 아르헨 신분증 성별에 'X' 도 표기

아르헨티나 신분증에 성별을 'X'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남녀 말고도 제3의 성별 표기를 허용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성별에 X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자신의 성별을 딱히 구분짓지 않는 이들이 이 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새로운 조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의 신분증 수정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신분증에 제3의 성별 표기를 허용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시민은 각 담당기관을 통해 신분증을 수정할 수 있다. 신분증을 수정하려면 출생증명서와 현재 사용 중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증을 수정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2년부터는 성 전환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나이지리아 기독인 학생 150명 납치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에 기독교인 학생 150여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납치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다미시 마을의 베델 침례고등학교다. 납치된 학생 중 28명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범인들은 학생 한 명당 약 14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나이지리아 내 무장단체들이 주로 북서부와 중북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된 학생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는 노상강도들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VOM은 공격 배후에 종교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현재 나이지리아 대다수 학교는 탁 트인 벌판에 세워져 있는데다 담장이 허술해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 즉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 기독교인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핍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美 하루 11만 · 유럽 동시 확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미국에선 5개월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을 넘어섰고, 유럽 각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올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791명으로 집계돼 지난 2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10만명을 넘겼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6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1만명대에 그쳤으나 전염력 높은 델타 변이가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퍼지면서 급증한 것이다.

최근 1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명에 근접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1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4만9746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할 때 2.73배 증가했다. 또 입원 환자도 57% 증가한 2만8780명, 하루 사망자도 20% 증가한 271명을 기록했다.

미 보건 당국은 플로리다, 텍사스, 미주리 등 백신 접종률 하위권 3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의 40%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전체 신규 확진자의 5명 중 1명은 플로리다주에서 나오고 있다"며 "플로리다주가 폭발적 재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에선 지난 한 주 동안 6만74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었던 지난 5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노마스크' 지침을 섣불리 내린 것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롬 애덤스 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CDC 지침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시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벗었다"며 "CDC가 그 시점에선 최선의 조언을 했지만 델타 변이가 상황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세계 6대륙 중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5000만명을 돌파한 유럽도 4차 재유행에 직면했다. 지난달 평균 5000명 이하를 기록했던 프랑스에선 24일 기준 2만562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5월 5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지난 19일 4차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포함한 각종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자유의 날'을 선포했던 영국에서도 이날 3만17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5월 1000명대까지 떨어졌던 영국의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최근 4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성인 인구의 약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신규 확진자가 매주 60%씩 늘고 있으니 9월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도 이날 기준 5140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에서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5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터키에서도 이날 1만23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터키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연휴 기간 등이 겹치며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이스라엘 '먹는 백신' 임상 추진

이스라엘서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구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업체인 오라메드 제약의 자회사인 오라백스 메디컬이 인도의 프레마스 바이오테크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보건부에 상업용 임상 시험 승인을 요청했다.

오라백스 측은 자사 백신이 1회 복용하는 알약 형태이며, 지난 3월 동물실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의 먹는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알약 형태의 백신이 현실화만 된다면 보관은 물론 유통도 간편해 콜드체인 등 유통 인프라나 의료 장비·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측은 특히 이 백신의 후보 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표적으로 삼는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3가지 구조 단백질(세포나 조직의 구조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면역체계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것이다.

#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9)

##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5) - 세계교회협의회(WCC)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2013년 부산 WCC 총회로 이념대결...객관적 이해 기회 놓쳐
## 외형에 집착한 병적 요소 회개하고 순수 복음 반석위에 서야

기독교계의 올림픽?

"기독교계의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가 지난 2013년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되기 전 보도된 뉴스 내용이다. WCC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국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동, 하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회 개최 뉴스가 보도된 이후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심한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총회를 유치하는 측에서는 WCC는 세계 110개국의 개신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 349개 기독교 교단의 5억6천명이 개입한 교회협의체이며, 향후 세계교회의 선교 방향과 전략을 협의하는 모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수성을 지닌 대부분의 교단들은 WCC가 어떤 신학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 총회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올림픽의 성격과 전혀 다르다며 유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도 WCC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한국 개신교 중 가장 영향력을 지닌 장로교회가 1959년에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된 가시적 원인 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상황 속에서 WCC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재현되자 초기부터 수용과 거부에 관한 강한 의견들이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치상황을 종결하기 위하여 진보와 보수 교회지도자들이 2013년 1월 'WCC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약측의 심한 반발로 인해 3주 후 공동선언문이 폐기되었다. 진보 측은 선언문이 WCC의 기본사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고 보수 측은 WCC의 기본 입장과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보수성

전국 교회가 들썩거리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전국적으로 WCC의 실체를 알리는 문서배포 및 신문광고가 진행되었으며 수만 명이 운집한 개최반대 집회가 지속되었다. 결국 2013년 WCC 부산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올림픽'의 모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WC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과거에는 교단의 결정을 따르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스스로 WCC의 정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있기에 각 교파와 교단의 교리적 독특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WCC 총회 개최는 한국교회의 보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부산총회 개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종의 이념대결과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다. WCC가 걸어온 역사적 흔적과 현재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수성이 강할수록 상대를 이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결론적 명제 안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도한 경우가 많아왔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WCC의 역사검증을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48년, 창립총회 전후

WCC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1948년도 8월이었다. 44개 국가에 속한 147개 교회와 종교 기관에서 파송한 351명의 대표자들이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주도하던 인물들은 과거 1910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범세계적 선교단체인 '세계선교대회(WMC: World MIssion Council)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일어난 3가지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체가 있었는데 향후 WCC의 정체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축을 이루게 된다. (1)1921년 미국 뉴욕 근교에서 시작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2)1925년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첫 모임을 가진 '생활과 사역운동(Life and Work)', (3)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 출발한 '신앙과 직제운동(Faith and Order)'이다. 1948년 창립총회에는 오직 '생활과 사역운동(2)'과 '신앙과 직제 운동(3)' 두 축이 만나 이루어졌다. 나머지 축인 '국제선교협의회(1)'는 이때 참여하지 않았고 1961년에 개최된 제 3회 총회부터 WCC에 합류하였다.

창립총회에 협력한 '생활과 사역운동'은 에큐메니칼 윤리에, '신앙과 직제운동'은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히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신학적 기준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생활과 사역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세속화의 현상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였다. 그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을 '책임사회'로 이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무질서, 세계의 평화, 인종문제, 국가 분쟁에 책임을 통감하였다. 그들은 신학적 논의를 피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려 하였지만 질문의 핵심은 신학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부터 '사회복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한편 '신앙과 직제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분열을 회개가 요구되는 악한 행위로 정의하고,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WCC의 다른 축인 '생활과 사역운동'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은 자칫 정치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 특히 사회봉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개인구원이 간과된 사회구원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인해 불편한 동거를 감당해야 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운동이 연합하게 됨으로 향후 에큐메니칼 교회론이 매우 넓어지는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1961년 제3차 WCC 총회에 동방정교회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그 후로 '신앙과 직제운동'은 다른 종교와의 대화창구를 여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로마가톨릭과 교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시도하였다. 제 5회 총회에는 로마가톨릭은 물론, 불교, 힌두교, 유대인 대표를 참관인으로 초청하고, 그리스도께서 타종교인들 가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신앙과 직제운동'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세계의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나 됨을 이루려는 구체적 방법을 추구하려 한 것이다.

1961년, 3차 총회 이후

1961년 인도 뉴델리 제3차 WCC 총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1)'가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WCC의 산하기구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이미 1952년 자체 모임에서 교회가 선교를 책임지는 전통적 개념을 포기하고, 세상 즉 지역의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도입하였기에, 1961년 이후 WCC 선교는 복음 선포의 중요성보다 봉사와 대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인간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생활과 사역운동'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WCC 내에서 '신앙과 직제운동'과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향후 WCC는 정치 신학과 해방신학을 수용함으로 더욱 급진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1975년 케냐 나이로비 제5차 총회에서는 사회의 구조 악으로부터의 혁명적 해방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점점 WCC는 역사적 기독교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1961년 이후 가장 큰 변화된 것은 제3국 세계교회 출신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1948년 이후 WCC는 서구 교회를 중심하여 발전하였다면, '국제선교협의회(1)'는 신생국가의 세계교회 무대 진출을 시도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제3국이 주를 이루었다. WCC의 주를 이룬 제3국 신생교회는 서구교회를 '지배하는 집단'으로 의식하고 있었기에 항상 그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현재에도 제3국 교회지도자들이 WCC를 주도하고 있다.

1992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7차 WCC 총회에서 이전의 유기체적 교회의 일치를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로 대치하였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조하였기에 '생활과 사역운동'과 '신앙과 직제운동' 사이의 신학적 차이가 더욱 해소되었고 이로서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론을 수용할 수 있었다. WCC 교회론이 매우 넓어진 것이다. 특히 이 모임에서 파격적인 샤머니즘적 초혼 행위를 거행한 한인 여성신학자 김현경 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다원주의, 혼합주의, 해방신학, 무속신학, 실존신학의 혼합된 형태로서의 WCC 신학의 민낯이 고스라니 드러났다.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된 제8자 WCC 총회는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에큐메니칼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WCC의 정체성으로 확립시키며 기독교 교단들 사이와 다른 종교들 사이를 가로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연합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굳게 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제9차 WCC 총회에서는 급변하는 세상의 정세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자 사회, 정치, 경제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여 유연하면서도 정의롭게 대처하기로 결의하였다.

2013년 이후

한국교회는 2013년 제10차 부산 WCC 총회를 통해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와의 일치, 정의로운 행동으로의 부름,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의 소명, 그리고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등의 중요 문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에 설명된 WCC의 기본사상으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근거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앞으로 교회가 져야할 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있던 병적인 요소를 회개하고 순수한 복음의 반석위에 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이다. 우리의 신학 논쟁과 비판 역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7)

제 4장 목양의 자세

8.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행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진지하고 열심 있고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의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큰 기술을 요하며 특히 더 큰 열정과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잘 깨어 있어야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활기찬 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늘의 일들을 경박하고 냉랭하게 말한다면 이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9. 성도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라

우리의 모든 목회사역은 양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양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10.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11. 모든 일을 경건하게 이루라

우리의 모든 일은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답게 행해져야 하며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 경건함이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와 친밀성을 가질 때 우러나오는 특징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불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며 마음과 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수백만의 영광스런 천사들을 본 듯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느끼는 위엄에 압도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불경스럽게 행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된다.

12. 영적인 방식으로 행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행한다. 성경의 탁월성을 인정치 않는 것은 심령이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적으로 사모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참 신자의 마음속에서 모든 거룩한 인상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넣는 도장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를 높여야 한다.

13. 성공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기대를 유지하라

목회사역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물론 믿음 있는 목회자는 그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두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감당했느냐 이기 때문이다.

14.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성을 절감하라

우리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이를 위해 온 힘과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한다.

15. 다른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행하라

우리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우리 일을 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동료 일군임을 깨닫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협동과 교류를 도모하고 우리가 돌보는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며 지도자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지켜야 하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목양의 이유

1. 양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목자이다

우리와 양들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양들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의 임무의 본질상 우리는 양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오직 그것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무슨 일이 그대에게 주어지든 이 모든 것은 그대가 자원한 것임을 기억하라.

셋째, 그대는 명예를 생각하여 자신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넷째, 그대가 목회의 직분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여러 다른 훌륭한 특권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만약 그대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 특권들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직분상 그대는 양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이다. 그대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대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만역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그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2. 이 관계는 성령께서 세우셨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관계의 실질적 원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를 교회의 목자로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감독이나 목회자로 삼으실 때 3가지 측면에서 역사하신다.

첫째, 그는 사람에게 직분에 대한 자격을 주신다.

둘째, 성직 수여자들로 하여금 성직자들의 자격을 잘 분별하고 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셋째, 목회자들이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대부분 특이한 방식으로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속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들을 합당한 직책에 임명하는 것뿐이다. 비록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게 직접적이거나 특이하지는 않더라도 그 역시 동일한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영적 방식으로 성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동역자들과 연합**
**성령께서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맡기심 기억**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 천국을 그리며

얼마 전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전직 의사의 사후세계에 대한 유튜브를 보라고 했다. 친구 남편이 암으로 화학요법 후 회복 중인데 시동생이 그 유튜브를 권했다는 것이다. 마침 사별의 슬픔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친구가 말한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처음 한, 두 강의는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별 거부감 없이 지나갔다.

그 강사는 사후세계의 증거로 요즈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임사체험을 언급했다. 조금 더 그 강사의 배경을 찾아보았더니 1960년대 죽음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안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에 앞장선 것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강신술 쪽으로 흘러갔던 사람이다.

한국에 있는 그 전직 의사 역시 환생을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다음의 삶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그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던 친구도, 시동생도 크리스천인데 분별없이 그런 내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1960년대 이후 심폐소생술이 발달되면서 뇌파가 정지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임사체험에 연결된 책이나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뇌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임사체험을 뇌의 환각작용이라고 말하던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혼수상태 후 깨어나 본인의 임사체험에 대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다.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과 분리된 영이 환한 빛을 따라 터널이나 문을 통과하였다고 말한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났다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들이 체험하였다고 하는 경험의 진위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래 전에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의 저자도 거짓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사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의사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도 영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매는 한국식 무당이며 사후세계를 아는데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한심한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요즈음의 관심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죽음 이후에 있을 현상이나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로마서 8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 등 성경 곳곳에 부활, 영생, 천국,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 등은 설교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또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견해가 다르며, 죽음 이후 부활에 관한 견해에도 차이가 있다.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성경구절의 해석도 다 다르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신비를 논하는 것이 마치 땅을 열심히 기어 다니는 개미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죽은 신자가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의식을 지니고 활동을 하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잠을 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친 후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분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영원한 생명체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한다.

lpyun@apu.edu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현장 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4:00~ 7:00
Tel.(773)8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 성도의 강점은 정직입니다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몇 년 전에 집에 새 식탁을 구입하기로 하고, 어디에서 구입할까 고민하던 중 신문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가구점들이 세일을 많이 하는 광고를 냈는데, 그 중에 한 가구점에서 조만간 점포를 정리해야 함으로 가구들을 싸게 판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식탁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가구점을 방문했습니다.

매장은 생각보다 꽤 컸습니다. 물건도 많았습니다. 둘러보는 동안 한 세일즈맨이 저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식탁들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둘러보는데 갑자기 세일즈맨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아니세요?" "제가 목사님처럼 보이세요?" 질문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목회자로 보였으니까요. 세일즈맨에게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느냐고 질문했더니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로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집에 필요하다고 싶은 식탁을 골라서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매장에 진열된 것 말고 새것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자 세일즈맨은 창고에 새것이 많이 있으니 새것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일즈맨이 자신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완불하고 가구점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식탁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집에 배달된 식탁은 새것이 아닌 진열되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았구나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게에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구입하기 원하는 모델을 가게 직원에게 말하니까 물건이 있다며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계약을 하려는 순간 가게 사장님이 나오셔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같은 용량의 에어컨이 있는데 1년 된 구형이지만 디자인이 더 좋아서 500불이 더 비싼 모델이 있다며 원하면 500불을 더 받지 않고, 원래 사려던 에어컨 모델의 가격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게에 딱 이 모델이 하나 남아서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게 사장님의 솔직함을 믿게 되었고 제가 사장님의 재고처리에 일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떳떳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강점은 정직에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이행해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며 어떻게 하던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십니다.

성도의 강점인 정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행23:1).

yosupbois@hotmail.com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김민지 교수

# ARS 현장 경험, 상담학 강의에 큰 도움

한인 이민의 역사가 12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민자의 삶은 외로움과 함께하는 삶이며 타인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수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는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한다. 이민생활에서 오는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한인가정상담소, LA정신건강국, 디디허쉬정신건강서비스 자살예방센터 등의 기관들이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이러한 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초기이민의 역사와 함께했던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인 신학교들이 기독교상담학과 혹은 상담심리학과를 개설하고 한인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김민지 교수

## 한인기독상담소 운영으로 학업성취도 높아질 것 기대

월드미션대학교(WMU)의 기독교상담학과의 김민지 교수는 "미국 내에 가장 필요한 분야중 하나라면 상담이라 생각한다. 한인들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상담분야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며 특별히 신학교에서의 기독교상담학은 교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지난 1월 본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가을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김민지 교수는 "줌을 통해 학생들과 첫 번째 만남에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소개만 하는 걸로 충분한 시간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소개의 시간은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고 사역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김민지 교수는 WMU에 부임하기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아시안재활서비스(ARS, Asian Rehabilitation Service)에서 근무했다.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상담학학사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기 전에 상담관련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몇 군데 업체에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ARS에 취업이 됐어요. ARS는 100% 정부에서 펀드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이스 메니징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상담에 대해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현재 10년 넘게 ARS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는 필드에서의 경험이 WMU에서 만나게 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스테이트LA에서 상담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준임상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임상상담사(LPCC,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김 교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고백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이 열리던 해 UC리버사이드로 ESL을 공부하러 왔었어요. 한학기만에 ESL을 마치고 가을학기부터 바이올라에서 상담학을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치열하게 공부했던 거 같아요. 특별히 ARS에서 근무를 하면서 더 많이 배웠거든요. 석사과정의 마지막 1년반은 인턴십을 병행해야 했는데 하루 4시간 정도만 잠을 잤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 같았어요."

김민지 교수의 삶의 이력 중에는 신체장애를 만난 것이 있다. 17세 고등학생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장애를 입은 김민지 교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밝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한 것은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과 3일간의 기억이 사라진 것 외엔 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은 하반신을 사고가 당하기 전처럼 사용할 수 없는 거 외에는 변한 것은 없는데 주변의 시각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어린이로 대해진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이 장애하면 모든 것이 상실된 것으로 여겨졌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뭐랄까 0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제가 학교에서 철봉에 매달리기와 오래달리기를 가장 잘했거든요. 반에서 1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사고이후 자유롭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로도 바꿔야 했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아마도 지금 같았다면 계속 노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 교수는 자신의 꿈을 위해 미국유학의 길을 택했고 현재 그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분야는 심리학 공부였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서점에 가면 심리학 섹션에 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WMU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김민지 교수는 재미있게 공부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점신경 쓰느라 캠퍼스에서 즐겁게 공부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사실 직장에서 대학 다닐 때 학점 얼마 나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10면으로 계속〉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오후 2시
수요예배:오후 8시
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찬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민족통역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EM목사 :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ilti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신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3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4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7일(화)부터 9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한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이민교회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이중언어 가능. 제출서류는 본인 및 사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족사진 첨부), 목회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6개월 내 설교영상 2회분,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가 필요하다. 서류는 이메일로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문의: kcch2019@gmail.com

#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 제명에 논란 예상

## 제 49회기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

제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뉴욕교협회관에서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보고'를 했다. 이날 '인수인계 불이행건 조사위원회' 보고가 있은 후 직전 회장 이준성 목사를 제명시켰다.

'인수인계 불이행' 건은 지난 1월 14일 열렸던 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동의 김홍석 목사, 재청 김용익 목사)으로, 특별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그동안 조사했던 '48-49회기 재정 및 서류인수인계 의혹에 관한 특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1. 시정조치를 약속한 것: 미 이월금과 장부누락 수입 사비 변제 총 $2,129.25달러 2. 의혹이 규명되었으나 시정조치 못한 것: 총회후 임원회 경비 및 식사대 총 $1,461.60 3. 규명하지 못한 의혹: 증경, 원로, 임원 연석, 선관위 모임, 임원회식대, 김재호 대책회의 등이 있었으며 총계 $3,590.85를 현 회기에 즉시 지불하도록 하며 이준성 목사가 목사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음을 지적한다고 보고했다.

제 49회기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에서 회장 김진화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보고가 끝나자 회계 임태현 목사가 이준성 목사를 제명할 것을 동의하고 김영환 목사가 재청하자 회장 김진화 목사가 가한가를 물은 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증경회장들과 여러 회원들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논쟁이 오갔지만 그대로 끝났다.

임실행위는 김진화 목사의 개회선언, 박태규 목사의 개회기도, 정인수 목사의 회원점명 후 시작됐으며 유태웅 목사의 광고 후 황동익 목사 축도가 예정돼 있었으나 축도 없이 마쳤다.

이날 참석했던 A 목사는 "이건을 보고한 후 상황설명도 없이 대뜸 임원(회계)이 제명을 발의하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날 방문한 목사가 즉각 제청하고 회장은 가한가만 묻고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한 회원을 제명시키는데 수 초 밖에 안 걸리는 이런 일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48회기 임원들은 이준성 목사가 특위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유인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혁신위 5차 회의에 참석자들. 왼쪽부터 현영갑 목사, 유상열 목사, 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 은행계좌증명 첨가, 감사 재무행정도

## 뉴욕교협 혁신위 5차 회의, 중간보고 정리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5차 회의가 7월 21일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번 5차 모임은 중간보고를 위한 정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회원가입절차 항목에 △은행계좌 증명을 첨가했으며 △감사가 재무행정을 감사하도록 하고 △선임한 외부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보고를 첨가했다.

혁신위는 회의록을 정리해 지난 24일 문석호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으며, 이 문서는 법규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로 보내져 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비롯 전희수, 임병남, 황영송, 현영갑 목사 등 5인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 연례 하계야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모임 하모니 하계야유회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이사장 임에스더)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Harmony)가 7월 15일 알리폰드 공원에서 연례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하모니 봉사자들과 상담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 하모니는 5주 핫라인 자원봉사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로 구성됐으며 상담소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24시간 한&영 이중언어 핫라인 전화를 받으며 또한 상담소 대내외 지역사회 행사와 아웃리치에 참여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높이기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모니 가입 문의는 뉴욕가정상담소 커뮤니티 아웃리치, 자원봉사자 이줄리 코디네이터(718-460-3801 Ext. 15, 이메일 Julie.Rhee@kafsc.org)에게 하면 된다.

한편 뉴욕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2021년 호돌이 방과후 학교가 지난 7월 6일 개학해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13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유미정 시니어디렉터(718-460-3801 Ext. 11, mjyou@kafsc.org)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 인터뷰

〈9면에서 계속〉

그런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학점이 B학점 이상이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장애 그리고 유학생활과 ARS라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풀어나간다면 학생들이 교과서 외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WMU에 한인기독상담소가 운영되는 만큼 기독교상담학과에서의 이론적인 수업과 한인기독상담소를 통해 실제적인 사역들이 어우러지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들의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가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할렐루야대회 잘 하도록 돕겠다"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 모임

뉴욕교협이 7월 27일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을 초청 오찬모임을 가졌다.

오후 12시30분 거성 식당에서 가진 초청 모임에서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를 준비하면서 증경회장님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장으로서 좀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석호 목사는 2021 할렐루야대회의 원래 구상을 설명하고[1차 준비기도회 참고] "선교부흥집회로 성격을 전환한 것은 뉴욕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목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특별혁신위원회는 회장으로서 어떤 주문이나 참견을 하지 않았다"며 "받은 정리 문건을 갖고 임원회를 한 뒤 해당 부서에 보내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석호 목사는 "증경회장단을 거스리려는 의도는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할 것이다. 혁신위의 중청어린 보도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말했다.

증경회장단 임시회장 김원기 목사는 "증경회장단은 현 회기가 잘 마치도록 기도해주는 역할"이라며 "할렐루야대회는 역사가 깊은 대회로 이번에도 잘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나눔의집에 1천 달러 헌금

##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담임 한동원 목사)가 설립기념일 맞아 이웃 사랑과 섬김 실천의 일환으로 뉴욕나눔의집에 설립기념일예배 헌금 1천 달러 전액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뉴저지 리버에지(River Edge)에 위치한 그레이스장로교회는 지난 7월 18일 교회설립 11주년 감사예배를 겨자씨교회연합공동체 주일예배로 함께 드렸다.

2010년 7월 4일에 창립한 그레이스장로교회는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나브로교회(담임 박근재 목사)와 "겨자씨교회연합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두 교회의 조직과 행정 및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일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및 각종 교회행사를 연합으로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그레이스장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기념 주일예배시 드린 설립감사헌금 전액을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헌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한동원 목사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배에는 시나브로교회 교인들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 겨자씨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특별히 한인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뉴욕나눔의집 가족 15명이 참석해 특별찬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성령과 함께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 2021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주최하는 2021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겟세마네 기도실에서 개최됐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2021 할렐루야대회를 청소년들과 홈리스 사역에 중점을 뒀으나 담당 사역자들과 논의한 결과 선교사를 초청하고 홈리스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장소와 오찬을 제공한 허연행 목사를 소개했다.

허연행 목사는 "이 장소는 순복음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뉴욕의 영계를 책임지신 목사들이 오시고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많은 계획을 했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도를 부탁한다"며 강사를 위해, 인원 동원(셔틀버스 운행), 재정에 적극 후원을 당부하고 올해는 강사후원금이 없고 강사비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홈리스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1부 예배는 이진아 목사 인도로 기도 박준열 목사(원주민 선교분과),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증경부회장), 설교 이기응 목사(협력위원장), 합심기도, 축도 김기호 목사(4감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기응 목사는 "성령과 함께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행10: 44-4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국내 교회(목사) 신뢰도가 37%밖에 안된다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2가지로 첫째 고넬료의 신앙심과 둘째,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고넬료의 신앙은 ①하나님을 경외함 ②구제 ③항상 기도 ④모범적 신앙생활이었다"며 "이런 신앙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스며들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교회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망'이라는 자아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성령과 함께 영적 세계로 들어가자"고 역설했다.

합심기도는 박마이클 목사(2021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감사, 순서자들, 진행과 날씨를 위한 기도), 송윤섭 장로(2021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준비위원들,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 심화자 목사(뉴욕교계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김희숙 목사(차세대 지도자와 선교부흥을 위하여)가 기도제목을 따라 각각 기도했다.

2부 경과보고는 회장 문석호 목사 사회로 이승진 목사의 개회기도 후 인사 문석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의 보고, 광고 박시훈 목사, 임영건 목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2021할렐루야대회는 양창근 선교사(파라과이)를 강사로 △9월 10일(금) 오전 10시30분 목회자 세미나 2021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1일(토) 오후 7시30분 뉴욕장로교회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 기독교 명저...

〈8면에서 계속〉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도망치는 것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 3.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엄위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다.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또 교회 안에는 천사들이 존재하며 거기서 성도들을 섬긴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벧전2:9).

### 4.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셨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돌보는 교회를 위해 치러진 값에서부터 유추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20:28)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태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기하자. 우리가 회중을 둘러볼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들이요, 따라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모든 애정을 바쳐 돌봐야 하는 존재임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hyojungyoo2@yahoo.com

# 격려와 도전...목회 노하우 나눠

## 새생명선교회 목회자세미나, 후원금도 전달

새생명선교회(대표 박희민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박희민 목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해 45개 단체 1000달러 지원했다. 하지만 '체크 하나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자체평가가 나와 이번에는 세미나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와 도전받고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 특별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품어 상부상조하는 이민교회 분위기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생명선교회 주최 목회제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박 목사는 "소형교회 지원과 더불어 100명 대학생들에게 1500달러를 후원하게 됐는데 360명이 지원해서 선발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실시된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선발은 지원자 중 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지원자는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후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바다.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로 한정했다.

박희민 목사 사회로 열린 목회자세미나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영성훈련',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기도사역',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설교사역',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가 '선교사역', 박희민 목사가 '건강한 교회',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개척교회사역',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성령사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 이후에 후원금 전달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박성현교수

# "오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 남가주든든한교회 박성현교수 초청 말씀과 간증집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는 고든콘웰 구약학교수인 박성현 박사를 초청, 말씀과 간증집회를 열었다.

25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진행된 본 집회는 '지키고 경작하라'는 주제 아래 1부 하나님의 백성(삿5:1-3), 2부 '하나님의 제사장'(벧전2:4-9), 3부 '하나님의 말씀'(벧전1:18-2:5)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현 교수는 1부 예배에서 "'지키고 경작함'이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축"이라고 단언하며 "아담은 경작과 지킴의 사명을 받았으나 사단의 꾐으로 에덴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사사기의 말씀을 풀어갔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방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사사들을 통해 고난에서 건지셨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우시고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전쟁터로 불렀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여기에 잇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전쟁에 동참했으나 아셀, 갓 르우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양떼, 무역로, 항구, 선박 등을 잘 경영하고 경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경영, 즉 경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킴이 필요한 순간이 이르면 명령은 받은 이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고, 부름 받지 않았다 해도 그 자리에 동참해 경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지원하며 지켜내고 사수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지켜내야 할 것과 경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전하며 "가난과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을 이끌어내어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였다"고 간증했다.

박성현 교수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고고학 및 인문학 학사학위, 텔아비브대학교에서 고고근동문화학 석사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 근동어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박성현 교수는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와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도 집회를 인도했다.

〈이성자 기자〉

CBS기독교방송 개국예배에서 한기형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 기독교 문화 창달 기여하겠다

## CBS 기독교방송 LA지역 개국 기념예배

CBS 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목사) 개국기념 예배가 19일 오후 5시 윌셔플레이스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와 인사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본부장 안신기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사장 김향로 장로의 기도, 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영길 목사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18절의 말씀을 통해 남가주지역의 영적 성장을 위해 CBS 기독교방송이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희망한다고 설교했으며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엄미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축하와 인사의 시간은 김홍수 CEO의 인사말씀에 이어 자문위원장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와 후원 이사장 김향로 장로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박경재 LA총영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CBS방송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지역에 새롭게 개국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CBS 방송이 이민자들에게 신앙 안에서 큰 소망과 위로가 뿐 아니라 앞으로 자체적으로 제작될 프로그램들을 통해 1세, 2세와 3세가 함께 공감하는 귀한 방송사로 쓰임 받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LA성시화 공동대표로 수고하는 송정명 목사,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등이 축사했고 한국 CBS 이사장인 김학중 목사와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한편, 대표 한기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CBS가 교계 연합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2세, 3세에게도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CBS 기독교방송〉

# 서부교계 게시판

### 생터성경사역원 LA 4기 전문강사스쿨

'어? 성경이 읽어지네!'(대표 이애실)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2021학년 제4기 전문강사스쿨을 9월 2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 5개월에 걸쳐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생터성경사역원의 '성경방 과정' 수료자로 등록금은 800달러.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들에게는 목회자 장학금이 지급되며 12번의 EL(Experience Learning)은 성경방 표준강의를 듣는 과정으로 'What to teach'를 배우게 되고 12번의 ML(Management Learning)은 강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How to teach"를 배우게 되며 PPT 활용 세미나도 진행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문의: (213)220-6729, jenny5152280@gmail.com

### 미주CGN TV 채널 44.9 방송시작

선교교육방송 미주CGN TV가 난시청 해결을 위해 남가주 지역 공중파 44.9번으로 8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31.9채널은 7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문의: (323)932-1200

### NPO 설립 및 운영 무료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최규남 총장)에서 총체적 선교를 위한 NPO 설립 및 운영 무료강의가 8월 2일(월)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미라클센터 1층 코이노니아 홀에서 열린다. 본 강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 설립을 통해서 교육선교, 자선선교, 비즈니스 선교 등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전략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30명.

▲문의: (714)525-0088(본교) Ext 101, 102

### 브릿지교회 VBS

브릿지교회(담임 김재호 목사) VBS가 8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50분까지.

▲문의: (213)800-3545

### 스타강사 김미경 초청강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스타강사 김미경을 초대해 코로나19 로 지친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 강연시간을 가진다. 오는 8월 1일(주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등록 선착순 100명에 한해 온라인 줌(Zoom) 세미나로 진행되며, 강연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된다. 그 외 추가등록은 'MKTV김미경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강연은 무료며, www.tinyurl.com//kfammktv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문의: mlee@kfamla.org

### 여름 찬양 기도회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교수 임창수 목사가 인도하는 여름 찬양 기도회가 '일어나라, 기뻐하라'는 주제로 얼바인 지역에서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얼바인한인장로교회(17702 Cowan, Irvine)에서 열린다.

▲문의: (714)715-5999

### 사우디 시내산 방문 설명회

사우디 시내산 방문추진위원회(명예위원장: 이재환 선교사, 본부장: 켄 안 선교사)가 추진하는 시내산 방문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된다. 이를 위한 설명회가 8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컴미션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자들은 예약해야 한다.

▲문의: (310)386-1133

# '미국내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 그레이스미션대 다문화 사역 연구결과 발표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사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 박사원(원장 이병구 박사) 연구팀에서 진행한 다문화 사역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GMU박사원의 금번 연구는 종교개발지원단체인 릴리 재단(Lily foundation)과 북미신학대학원협회(ATS)가 공동주관하는 '미국내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MU 박사원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GMU 박사원 연구팀(팀장 이병구 박사)은 다문화사역 리더십 개발을 통한 미국교회 재활성화(Revitalization) 방안을 연구했고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목회자, 신학생이 주류를 이뤘고 소수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포함됐다. 조사에 응한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부분(94%) 다문화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본 연구를 이끈 이병구 박사(GMU박사원장)는 "본 연구를 통해 신학교의 교육과 사역 현장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다문화 사역자 훈련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 말했고, 양적 조사를 정리하고 분석한 김종철 박사(선교사)는 "이 보고서는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문화 사역 현장을 섬기는 전종만 박사(다문화교회 목회자)와 남궁현 목사(미해군군목)는 "연구결과를 사역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겠다"

## 브릿지교회 김재호 담임목사 위임예배

브릿지교회는 김재호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7월 25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김재호 목사는 브릿지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말하고 "브릿지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신목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바람 목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2년차지만 벌써 교만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경배와 찬양과 김종옥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 사회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승광철 목사(본교회 5대 담임)가 대표기도했으며 박해진 전도사가 특송했다.

이어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국제총회 총회장)가 '주님이 붙잡은 종'(계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홍주 목사는 "담임목사 위임식은 교회와 목사의 마치 결혼식 같은 것"이라며 "좋은 교회는 거저 되지 않는다. 첫째,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돼야 한다. 둘째,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셋째 열심히 일해야 한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 그 모든 축복이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목사와 성도가 혼연일치돼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지명현 목사(나성영락교회)가 특송했으며 최홍주 목사 집례로 담임목사 위임식이 시작돼 위임자 소개, 위임자 서약, 기도, 위임패 수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승년 목사(브릿지교회 1대 담임)가 권면, 박병섭 목사(샌디에고 사랑교회, 국제총회 미주노회장)와 최규남 박사(GMU 총장)가 축사를,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영상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김재호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호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아주사퍼시픽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에덴선교교회 전도사, 에브리데이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한편 이날 오전 1부와 2부 예배는 본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졌으며 김승년 목사(1대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2부 예배 시간에는 장로&권사 은퇴식이 함께 열렸는데 김두봉 장로가 은퇴 및 원로장로로, 장난희 권사가 은퇴권사로 추대됐다.

〈박준호 기자〉

브릿지교회 김재호 담임목사 위임예배 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하단 타원안은 오전에 열린 창립30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 권사 은퇴식을 마친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미성대 류종길 명예총장 부인 함영희 사모 별세

미성대학교 명예총장 류종길 목사의 부인 함영희 사모가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 함영희 사모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영문과,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했다. 장례예배는 27일 오전 10시 30분(이하 미서부시간) LA 한국장의사에서,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1시 로즈힐메모리얼 파크에서 각각 진행됐다. 장례예배와 하관예배는 유튜브(https://youtu.be/r_bjnGP2lPg)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편 공주대학교 오승민 교수가 제작한 함영희 사모 추모 영상은 다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byfRqxVGj6U

〈정리: 박준호 기자〉

# 한교총, 통합 위해 한기총 끌어안을까

## 연합기관 통합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교계 연합기관 대통합을 논의 중이다. 통합 상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늦어도 9월 초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기총 회원 중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 한교총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먼저 자신이 총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울산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실행위원들은 통합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실행위원들의 동의가 총회 전체의 동의라고는 할 수 없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회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연구 끝에 한기총을 이단옹호 기관으로 규정해 달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최종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한기총과 함께 가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 재보고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 건은 한교총 소속 교단들에도 아직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단 문제고, 또 하나는 한교총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기총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 목사는 20일 천안 백석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각 교단들의 협력을 구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23개 주요 교단 총회장이 모인 협의체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 목사는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 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주체는 한교총이지만 소 목사가 교단장회의에서 협력을 요청한 이유는 한국교회 전체에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교총 회원 교단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대상이 한기총이 돼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표회장이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맙지만 대다수 교단은 회의적"이라고 내부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교단 중진 역시 "연합기관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단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결국 주요 장로교단들의 9월 총회 전에 교단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은 법원 판결을 통해 대표회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 대표회장으로 세우고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최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회비 납부를 독려하면서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한기총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곧 임원회를 개최해 통합 안건을 다룰 전망"이라고 말했다.

# "교회만 차별하는 정치적 방역 즉각 중단하라"

## 예자연 규탄 성명…조직 확대 · 의료전문위원 위촉

예자연은 20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회와 정책을 결정할 시 종교기관의 단체장들과 협력해 정책을 시행할 것, 종교기관과 논의 시 친정부 성격의 단체들과만 협상하지 말 것,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낭독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예배 허용' '대면예배 금지' 등의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해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자연은 임시총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을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선정했다. 강원·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했고, 이와 함께 그간 법률 부문에만 뒀던 전문위원을 의료 부문에도 두기로 했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가 의료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예자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 담당자 선임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교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담당자 역시 2인 이상의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사무총장 등 주요 기관장 4명 동시 인준

## 예장통합 9월 106회 정기총회 핵심 관전 포인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106회 정기총회에서 주요 기관장 4명을 동시에 인준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변수가 있지만 예장통합은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예장통합은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사무총장과 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기독공보·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을 최종 결정한다. 총회 요직으로 분류되는 이들 기관장을 한꺼번에 인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총회 개회 전 각 기관 이사회나 총회 임원회는 기관장 서리를 미리 선출한다. 총회 인준은 기관장을 임명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선은 무산된다. 지난해 장로회신학대 총장 인준이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기관장 선출 절차는 각각 다르다. 총회 본부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은 9명으로 구성된 총회임원회가 투표로 결정한다. 김보현 영국 선교사, 김상만 수서교회 부목사, 김종성 주안대학원대 교수, 남윤희 실로암안과병원 홍보기획실장, 박명성 전 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 백경천 이삭의샘선교회 총무,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가나다 순)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장통합 임원들은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을 낙점해 총회에 보고한다.

장로회신학대 이사회는 이미 총장대행으로 일하던 김운용 교수를 총장서리로 선출했다. 장로회신학대 이사회도 총대들에게 김 총장서리에 대한 인준을 요청한다. 한국기독공보와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도 사장 인선을 마무리한 뒤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한편 '장로교 12신조'의 일부분이 삭제된 경위를 찾는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조직인 독노회가 조직될 때 채택한 장로교 12신조는 신앙과 신학, 목회의 기둥으로 불리는 장로교회의 핵심 가치다.

하지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위원장 심상효 목사)가 장로교 12신조 일부 내용이 삭제됐는데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최근 조사위 구성을 청원했다. 이대위는 "열두 번째 신조의 마지막 문장인 '그러나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삭제됐지만 아직 누구도 경위를 모른다"며 "예장합동과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최태영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은 한국기독공보에 기고한 글에서 "1907년 독노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른 장로교단 신조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내용이 유독 예장통합에서만 사라진 건 놀라운 일"이라며 "삭제된 건 지옥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치 지옥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며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제거하려는 이단적 행위와도 같다"고 우려했다.

# 북한 복음화 통해 북방선교 초석 놓는다

## C&MA 한국총회 평창서 연례 총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와 협력관계에 있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국총회가 최근 총회를 열고 신학교 한국분교 설립 및 북한선교에 주력하기로 했다.

C&MA 한국총회 관계자는 20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11-12일 제4차 연례 총회를 열고, 5차 총회 사업과 기성 예성 등 형제 교단과 선교협력 강화, 한국분교 설립, 북한선교 포럼 개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차 한국총회를 맞는 C&MA는 총회 본부, 선교센터, 신학교,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단 소속인 심슨대학교와 토저신학교의 한국분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방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내년 4월 북한선교포럼도 연다.

총회는 세계 C&MA 출판물과 자료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용권도 허락받아 출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교단은 기성 소속 이스라엘 선교사 2명에게 종교비자를 주기로 했으며, 베트남 선교사의 비자 발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형준 총회장은 "총회에서 몽골족, 위구르족 등 북방 미전도종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선교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교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C&MA 한국총회는 2018년 출범했다. 미국 등 96개국에서 2500여 교회, 50만 성도가 연합회 성격으로 세계 C&MA 교단에 소속돼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출신 교단으로 유명한데, 미국 나약대 심슨대 크라운대 등이 같은 계열의 대학이다. 한국총회는 기성 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와 협력관계에 있으며, 사역자 과정과 총회신학교를 운영한다.

# "평등법안 반대" 지역교계도 한목소리

## 교단 이어…본질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등 기독교계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궤를 같이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분열과 역차별을 조장하고 신앙 양심 등을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대 움직임은 교계 연합기관과 지역교회 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과 예장대신, 예장합신은 최근 공동으로 낸 성명을 통해 평등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구별과 차별을 오해해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하지만 차별 영역에 제한이 없고, 차별 금지 사유도 더욱 광범위해 일각에선 '비정상적 구조를 가진 신전제주의 독재법'이란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주요 교단들 역시 그동안 계속해서 평등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들은 공통으로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 기독교계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평등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가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며 "당 대표적인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서 당이 이 법 제정을 지향한다는 뉘앙스는 느낄 수 있지만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단 중심으로 진행됐던 평등법안 반대 운동은 교계 연합 기관과 지역교회 연합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달 22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연 데 이어,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지난 22일 광주 본향교회에서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목사·장로·지도자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기독교계는 지역 1500여 교회들이 참여하는 구국기도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설교를 전할 계획이다.

# 도쿄올림픽 출전, 기독 전사들…

##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회 기간 중보기도

안바울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올림픽 무대에서 마음껏 뽐내는 40여명의 기독 선수와 코치진 등이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한국교회도 이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중보기도에 나섰다.

여자 핸드볼대표팀의 정유라는 27일 오후 4시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수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1923년 국내에 럭비가 도입된 후 약 100년 만에 사상 첫 올림픽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럭비 7인제 대표팀의 장성민은 "올림픽 첫 출전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로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모세와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인 남자 25m 속사권총의 한대윤은 경기에 앞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선수들이다. 김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처럼 역경을 딛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전했다. 그의 이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다.

코치진과 심판 등으로 올림픽 무대에 오른 이들도 있다. 사격 이도희 감독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오윤정 복싱 트레이너는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뿐 아니라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숙희 여의도순복음교회 집사는 유도 지명심판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현 집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셔서 귀한 자리에 발탁됐다"면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선수와 코치진을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대표회장 함덕기 목사)는 코로나19로 도쿄에 스포츠선교단을 파송하지 않았다. 대신 대회 기간 중보기도팀을 운영해 경기 일정에 맞춰 선수들과 코치진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황승택 전도사는 "선수촌 운영방침에 따라 선수들도 선수촌에서 퇴촌하느라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며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양육을 받기 어려운데, 선수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경기 모습이 비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총재 강영선 목사)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와 코치진을 위해 기도할 '1004명의 기도용사'를,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는 지난 8일 온라인으로 기독선수파송예배를 진행하면서 '10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했다.

# 신천지 정부방역활동 방해혐의입증 공방

## 이만희 교주 항소심 2차 공판서 역학조사 범위 놓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 교주의 유죄를 주장했고, 이 교주 측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모두 제출하는 등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방법의 입법 과정은 미래의 혼란을 예상해 미리 법 규범화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처럼 역학조사 범위를 사전준비행위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역학조사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의미로서의 정보제공요청 부분은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명단, 시설현황 제출 요구가 광의의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증상 감염자 존재 등 신종 감염병으로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규정만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원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과 방역을 위해 먼저 신천지 관리 시설을 파악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 교주 측은 "검사는 역학조사 범위와 내용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추가요청이 없었음에도 총 3차례 걸쳐 교단의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주는 이날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판장에 나왔다. 변호인이 구술변론에 나설 땐 변호인 측에서 마련해 준 변론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 교주를 엄하게 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종교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가진 이 교주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에는 8000여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탄원서에 "신천지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감춰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교주의 명확한 56억원 횡령 범죄와 종교 사기에 대한 사법적 실형 판결로 3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가정과 인생 파탄의 피해를 종식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 선교의 창 (174)

송종룩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선교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리매김 한 모라비안 공동체

18세기 유럽 교회는 기울어 가고 있었다. 과거 찬란한 기독교 문명 속에 교회 건물들은 관광지가 되어 가고 있을 때였다. 이때에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둠 속에 찬란한 빛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진원지가 되었다. 영국교회의 대주교 겸 작가였던 로날드 녹스(Ronald Knox, 1888-1957)는 모라비안 운동을 일컬어 유럽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누룩"이라고 했다. 저들은 처음 독일 작센 지역에 있던 조그만 공동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보여준 선교의 모범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어떻게 저들이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난 2백년간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 보다 더 많을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저들은 요한 웨슬레(John Wesley)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전도자들에게 선교적 영감을 끼쳤다. 코로나로 선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저들의 선교정신과 사역방법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모라비안 운동의 유래

모라비안 공동체는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지역에서 나온 난민들이 독일 작센 지방의 사유지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말한다. 모라비아란 이름은 오늘날 체코 공화국의 동쪽에 있던 지명이며 그 어원은 그 지역 북서부에 있는 모라바(Morava) 강에서 유래했다. 모라비안들은 15세기 초에 종교 개혁자 존 후스(John Huss)의 영향을 받았다. 저들은 1467년 이름을 "형제 교회(the Church of the Brotherhood)"라고 개칭하였으며 16,7세기에는 가톨릭교회의 제도를 거부함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저들은 1722년에 90명의 신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피해 작센지방으로 피난하게 되었고 젊은 경건주의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으로부터 드레스덴(Dresden) 근처의 영지(領地) 한 부분을 제공받게 되었다. 4년 후인 1726년에는 그 수가 3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저들은 이곳을 헤른훗(Herrnhut)이라 하였다. 처음에 진젠도르프는 피난처만 제공했을 뿐, 이 정착자들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점차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후에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돌보기 위해 백작의 지위도 버리고 형제단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1727년 성찬 예배를 통해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감독으로 안수를 받음으로서 헤른훗의 지도자로 확증되었다.

진젠도르프(Nicholas Ludwig Zinzendorf, 1700-1760) 백작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이 말은 진젠돌프 백작의 중심 생각이었다. 그는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교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과 열심면에서도 진정한 모델이 되었다. 그의 지도력 하에서 모라비안 운동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진젠도르프는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프랑케의 제자였으며 열렬한 경건주의 가문에서 자란 젊은 귀족이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그의 전 생애와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었다. 그는 당시 독일의 학문 성향인 이성적 신(神) 인식을 거부하였고 오직 기독론 중심의 역사적 계시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선교 신학은 "복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은 성령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주인이고 그 자체를 주관하시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18세기 경건주의를 빛냈으며, 크리스천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새로운 판단력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 주었다.

### 3.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 내용

모라비안 선교회가 1732년 8월 서인도 제도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한 사람은 목수이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였다. 이제 들어가면 다시 오지 못할 두 사람을 보내면서 성도들은 부둣가에 나와서 그들을 배웅했다. 그 때 배가 막 떠나는 순간 한 사람이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소서." 1732년에 이렇게 시작된 저들의 선교는 1735년에는 그린란드와 수리남, 1737년에는 아프리카, 1740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실론, 1742년에는 중국, 1747년에는 페르시아, 1754년에는 자메이카, 1756년에는 안티구아(Antigua)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다.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 동안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모라비안 공동체는 서인도제도에서 2백년에 걸쳐 3천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고, 해외 선교지의 신자 수가 내지 교회 신자의 3배나 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 5.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특징

모라비안들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걸쳐서 선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운동을 했다. 저들은 1727년부터 24명으로 구성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남여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자정부터 한 팀이 한 시간씩 24 시간 연도(連禱)를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그로부터 백년 이상 지속됐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육신적 선교를 했다. 한 예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결정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저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수난을 몸소 실천했다. 셋째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였다. 저들은 공동체 생활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디든 가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았다. 또한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생활 준비를 하였다. 넷째는 평신도 중심의 자비량 선교를 했다. 저들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모라비안중에는 기술공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자립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는 전투적인 선교였다. 모라비안들은 본국에 있는 신자와 선교사의 비율이 12:1일 정도로 대단하였다. 저들은 선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

### 맺음 말

진젠도르프가 이끌었던 모라비안 공동체는 세계선교역사에서 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저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적인 삶과 희생적 선교는 비교할 데가 없다. 저들은 사역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족공동체를 지향했다. 이유인즉,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때문이었다. 나아가 저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살아가는 전투적인 삶을 추구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를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 선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모라비안 공동체는 당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선교 기관이 될 수 있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집단으로 헌신한 이 공동체는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진한 감동과 도전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모라비안들의 선교 정신과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교회들도 모라비안 같은 선교정신과 열정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들의 숭고한 헌신이 보일 듯 말듯 하다.

jrsong007@hanmail.net

*모라비안들은 사실 당시 개신교 교회의 주축 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 같은 저들을 들어 선교의 주춧돌로 쓰셨다.*
*모라비안들은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중심적인 삶을 산 공동체였다.*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 ⑧ 최초 선교지 구브로

강태광 목사
( 월드쉐어USA대표 )

인류 최초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회의 리더였고, 안디옥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의 존재를 알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임을 밝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애 그리고 기독교 선교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브로를 살펴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들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력자 마가 요한이 안디옥을 떠나 첫 선교지로 방문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행4:36). 안디옥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팀은 초반에 당시 최 연장자인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서 선교를 제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남쪽에 자리 잡은 구브로는 지리상으로는 서남아시아로 분류되지만 유럽에 가까이 있어서 유럽처럼 느껴집니다. 구브로는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시리아·레바논·이스라엘,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접하고 있어 고대 제국들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구브로의 역사는 선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광장이라는 의미인데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눕니다. 이외에도 구브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또 스토아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무역상 아들이었던 제논이 아테네에 이주해서 철학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학의 원조인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구브로가 등장합니다. 이런 고전들에 구브로가 등장하는 것이 구브로의 오래된 역사를 말합니다.

구브로는 성경에서도 구약부터 등장합니다. 구약의 '깃딤'(창10:4, 민24:24, 대상1:7, 사23;1, 12, 렘2:10, 겔27:6, 단11:30)이 구브로입니다. '깃딤'은 '괴롭게 하다'란 의미의 히브리어의 킷티에서 온 말로 과거 이 섬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구브로에 있던 도시인 키티온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행4:36)이었고,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 나손의 고향(행21:16)이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구브로는 여러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BC 707부터 669년까지 구브로가 앗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BC 570년에서 545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BC 333년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하고 BC 57년에 로마에 점령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 시대에 구브로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령이었으나 후에 원로원에 소속되어 대리총독으로 불리는 집정관이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서기오 바울이 대리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가 바나바와 바울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기독교 첫 선교사들의 첫 선교 열매가 첫 선교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배가 되는 대형 섬입니다. 구브로의 영어 발음은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Cyprus)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입니다. 2002년 1월부터 한국군 출신 최초 유엔군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황진하 장군(육사 25기 중장, 전 국회의원)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구브로는 시리아 해안에서도 9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구브로에는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행13:5)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구브로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다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가 주목받게 된 것은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예루살렘교회 지도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본명은 조셉인데 위로에 탁월했던 그에게 예루살렘교회가 바나바(위로자)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권위자(勸慰者)라는 의미인 '바나바'는 기독교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을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바울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교회를 세웠고, 안디옥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유대인 폭동 때 돌에 맞아 순교한 후 구브로에 묻혔고, 그의 무덤은 현재 구브로의 중요한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바나바를 기념하는 바나바수도원이 구브로에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구브로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이 구브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난파당한 후 기적적으로 구브로에 도착한 나사로는 30년간 구브로에서 선교하다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기념교회가 구브로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관광명소입니다. 아울러 구브로에는 바울이 선교 중에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성공회)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입니다.

chap1207@hotmail.com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며 안디옥교회 첫 해외선교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첫 열매...나사로기념교회도 있어**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나라의 시작(창12:1-3)찬486장**

하나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나라의 표본을 이 땅에 국가 형태로 세우십니다. 그 시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영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주권) 민족(국민)을 만드시며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롬4장). 우리는 하나님나라(생명, 구원)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생명, 구원)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됩시다.

**화 보여줄 땅(창12:4-9)찬430장**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잔꾀를 차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 무작정 떠났습니다(히11:8). 지도나 네비게이션도 없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며 마침내 가나안(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 기근과 애굽(창12:10-20)찬546장**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 풍요를 좇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래를 아내로 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사래를 바로의 침실로 보내고 바로에게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그 재앙이 사래를 취하려고 했던 일 때문임을 깨달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간 종살이한 후 은금과 패물을 받아 출애굽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창13:1-18)찬199장**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아브라함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가축이 심히 많아져서 함께 거주하기 힘들게 되고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소알을 선택해 소돔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합니다(창3:6).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했습니다(마4:8).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금 방패와 상급(창15:1-7)찬19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그 뒤에 피하는 사람을 대신해 칼과 화살을 맞으며 방패 뒤에 피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즉,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는 씨(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창15:8-21)찬573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 약속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하셨고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의 중간을 쪼개 반으로 갈라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 큰 재물을 갖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언약불이행 시 받을 형벌(쪼개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쪼개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언약)가 우리를 생명(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0)

#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2)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 공동체

(지난 회에 초대교회 예배음악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예배찬양관을 정립하며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예배찬양에 대해 제시함직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며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찬양 가사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찬양 가사를 정돈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였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결론은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찬양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많은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삼위 중 한 분에 집중이 된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윤리, 고백 등이 더 강조되어 가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초기 기독교 예배를 연구하는 듀크대학의 레스터 루스(Lester Ruth) 교수는 오늘날 미국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놓았다.

## 인간 감정 배제한 그레고리안챤트는 찬양의 좋은 교범
##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적 기교로 회복돼야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곡은 모든 다섯 곡 안에서 한 곡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도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직접 언급된 찬양은 열 곡 중 한 곡도 채 안 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곡 중 다섯 곡이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곡은 다섯 곡 중 한 곡에 이른다는 연구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찬양들을 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이 통계에서 나온 결과보다도 더 낮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먼저 가사에 깊은 주안점을 두고 음악의 전체 흐름을 점검하여 곡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곡을 쓰는 작곡가들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 음악에 그 가사를 대입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 신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작시자들에게 의뢰하여 가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곡을 쓰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찬양의 음악적 기교를 점검하여 바른 음악적 기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드렸던 찬양은 다양하지만 단순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사건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레고리안 성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유대교, 초대 기독교 교회의 예전과 찬양을 수집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가사와 음악으로 찬양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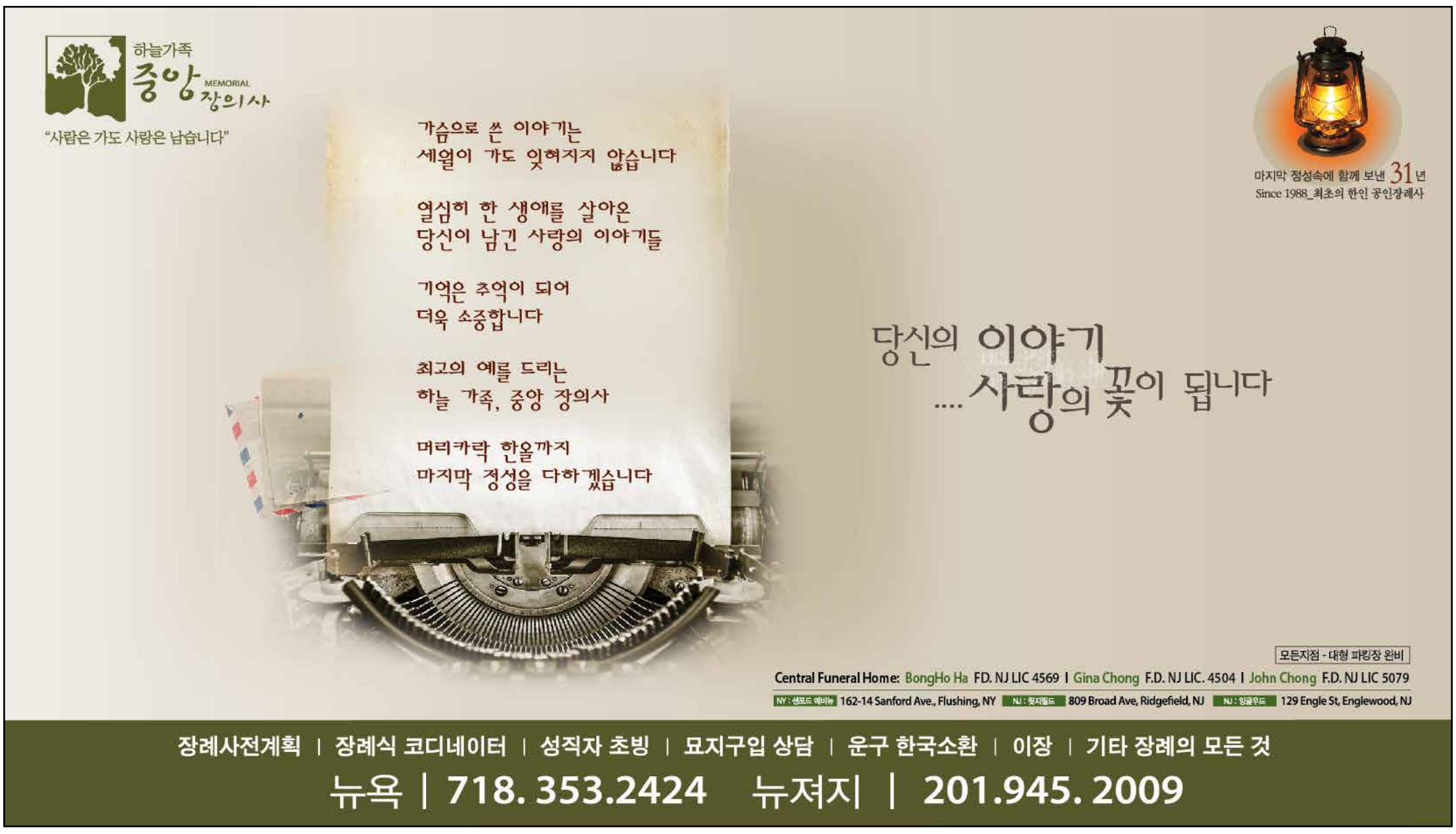
그레고리안 성가는 예배를 위한 기능음악으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비개성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이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그레고리안 챤트는 하나님을 찬양드림에 있어 좋은 교범이 되는 중요 단서이다.

오늘날 예배음악은 화려한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에 더 심취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쓴 김춘해 교수는 "지금의 교회음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한다" 라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악은 그 예술성, 아름다움 이전에 단순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그 소중한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날의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음악 예술을 물론 저버릴 수 없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교와 기술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요, 수단이지 그 이상 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 예배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응답송(Responsorial) 형태로 또는 교창송(Antiphonal) 형태로 매 순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다. 오늘날 현대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가짐을 흐트러트리고 열정의 찬양을 갖지 못하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하나의 예로 오늘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이 스크린을 통해 모두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15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 인도네시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편 22:27-28).

샬롬 인도네시아 동역자님들께 바탐 섬에서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되는 않는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들 앞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동역자분들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고 동역자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깨어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동역자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동역과 중보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 큰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5-6천명/일→1.3만명/일)로 전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백신을 접종한 인도네시아 의사와 간호사들의 무더기 코로나 확진소식과 한인교민과 선교사님들의 확진 소식들 가운데 바탐 섬에서의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지 많이 고민하며, 동선을 최대한 줄이며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는 사역은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사역자들과는 매일 모여 기도회와 설교와 학습자료들을 준비해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사역의 끈을 이어가며 가정들을 돌보고 심방하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무허가 빈민마을에서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들과 어린 자녀들이 굶고 있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

하신 주님께 감사입니다. 어려운 팬데믹 시간 가운데 현장에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이 주님이 살아 일하고 계신 증거이고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가 더 심해져 바탐 한인들도 사망하고 선교사님들도 확진이 계속되어 병원에 계신 선교사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역현장이 동요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말씀(TEE)훈련을 통해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나나스 마을과 발로이 꼴람마을의 공부방 친구들과 가족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들을 해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 않고 부모들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 리완, 기드온, 오리스, 노르마, 알피안, 이부빠르띤 사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돌보시고 또한 매일 심방하며 돌보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큰 믿음과 사랑의 띠로 묶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지난주에 장인어른이 심근경색과 심장출혈로 두 번째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모든 상황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고, 가족들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늘아래 인도네시아에서 김태호, 장윤희, 현준, 현민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를 들고 찬양하는 것과 찬송가 없이 스크린에 의존해서 찬양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찬송가를 손에 직접 들고 찬양할 때에 더 깊이 가사를 묵상하며 열정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높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닌 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자들은 찬양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찬양을 드린 예배공동체였다. 오늘날 우리 예배찬양의 현실을 진단해볼 때 초대교회 찬양공동체보다도 훨씬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기술을 갖고 화려하고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에 더 치우쳐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 교수는 오늘의 예배찬양을 "합리주의(Rationalism), 감정주의(emotionalism), 그리고 오락적(entertainment) 요소의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이 요소들은 결국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려는 강한 본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와 음악의 한 단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찬양을 보며 재정돈(reset)하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 같다. "오늘날 크리스천 예배자들이여 찬양의 본질적 요소를 갖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적인 기교,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iyoon@wmu.edu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2)

##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반 한 뉴저지밀알선교단의 장애인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과 육을 포함한 통전적인 복음이다. 필자는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계를 살펴봄으로 예수께서 의도한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일 뿐 아니라 현세적이어서 영과 육을 포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실현했던 헨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헨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에 비추어 뉴저지밀알 선교단의 사역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뉴저지밀알선교단의 역사

뉴저지밀알의 역사는 1992년 6월 8일 미주 밀알선교단으로부터 시작한다. 1983년 장애인선교와 공부에 목적을 두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각장애인 이재서 박사(현 세계밀알총재, 총신대학교수)는 1990년 럭커스 대학원 사회복지정책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 1980년 대학 1학년 때부터 봉사하였고 육군에서 군목을 마치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 미국에 와있던 강원호 목사 부부와 함께 1991년 11월 2일 워싱톤밀알선교단을 설립하고 1992년 6월 8일 워싱턴밀알을 중심으로 미주밀알선교단을 조직하였다. 미주밀알선교단은 1979년 10월 16일에 세워진 한국밀알선교단과 같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미주밀알선교단은 1994년 7월 17일 뉴저지 밀알선교단을 창단하였다. 1994년 7월 17일부터 1994년 10월 14일까지 한수진 자매가 비상근 책임사역자로 수고했고 1994년 10월 15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종세 집사가 전임 총무로 수고했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이상조 목사가 단장으로 수고했으며 2001년 7월1일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필자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필자는 1991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워싱턴밀알단장을 역임한 바 있고 1997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한국밀알단장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2001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미주 총단장직과 뉴저지밀알선교단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현재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과 세계밀알연합회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제 2절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3대 존재목적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미주밀알선교단과 함께 3대 존재목적을 공유하고 있다(이재서, "밀알의 마음 강물로 흐르면" 서울: 한국밀알출판부, 2004). 이 목적은 세계 어느 밀알선교단도 모두 함께한다.

1. 전도

첫 번째 목적은 전도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장애인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사회복지적 차원만 생각한다. 비장애인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듯이 장애인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밀알선교단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고 밀알의 모든 활동은 성경적 가치관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은 밀알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원이나 직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2. 봉사

두 번째 목적은 봉사다. 장애인들은 예수님의 복음만 필요할 뿐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서 어렵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도움과 특수교육, 차량 라이드 등등 봉사가 필요하다. 특히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정서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친구 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3. 계몽

세 번째 목적은 계몽이다. 이 일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없고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세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알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교회나 사회에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miju92@gmail.com

버려진 성경 살리기
Re:Bible Note

버려지고, 외면받던 성경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경노트
One and Only 성경노트
다시 사랑받고 싶습니다.

구매는 히즈핑거몰 웹사이트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www.hisfingermall.com

모든 노트는 버려진 성경으로 만들어진 단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문서선교에 사용됩니다.
Hisfinger

인/터/뷰

### 고든콘웰신학교, 선교학 조은아 교수

# "위대한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스스로 위대해질 필요 없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전교인 여름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조은아 교수는 복음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노라", "십자가" 작사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월 "은혜 입은 자의 삶"(두란노)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 제목이 이번 퀸즈장로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여성을 주 강사로 초청한 것은 드문 경우지만 조 교수는 은혜가 넘치면서도 뛰어난 강의로 교인들의 공감을 이뤄냈다.

조은아 교수는 15세에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러시아 싱크트 뻬제르부르그 사범대학(노어노문학)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MA, Ph.D)을 공부했다. 현재는 고든콘웰의 선교학 교수로 "문화 이해", "교차문화 리더십", "리더십 개발" 등을 강의하며 신학교 산하의 다양한 센터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Gordon Conwell Institute의 학장으로 교회 갱신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은아 교수를 지면으로 만나본다.

조은아 교수

-캐나다 이민 1.5세로 이민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번 퀸즈장로교회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이민자로서 하나님께 부여 받고 보냄 받은 특별한 삶의 자리, 즉 "문지방 자리, 경계선 자리"를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는 경계선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누구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요란하지 않은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스스로는 잠잠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는 삶도, 큰 바위도 아니기에, 떨어진다고 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삶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때야 부러지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질 필요는 없음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위대할 필요도 요란할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요란하지 않은 삶"의 가치 강조
## 땅, 길, 끝...삶속에 새기며 살아와

-사역 철학을 소개해주신다면?

삶 속에 깊이 새겨진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길, 그리고 끝"입니다.

저는 다양한 땅들을 밟으며 살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많이 이동하며 살아왔고(한국,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땅들과 사람들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길을 걷다가 또 다른 땅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별 다른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을 것이라는 잠잠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용기, 적응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땅들을 이어준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걸어야 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끝을 마음 한가득 품고 하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끝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7:9-10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며 살아 계신 열방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끝을 품으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웃의 소리에 귀 막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장으로 섬기는 Gordon Conwell Institute가 지역 교회와 평신도 리더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시간과 공간을 고안하여서 신학교의 풍성한 자원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도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 믿는 것이지요. 공동체와 더불어 삶이 이뤄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Communal and Mutual Learning(공동적이고 상호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하나님
##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며 살길...

-신력 및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중 황해도에서 목회하시다 순교하신 할아버지와 7남매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키우신 할머니의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5년의 공식적인 목회는 물론 은퇴 이후에도 목회적 돌봄의 수고를 기쁨으로 이어 가신 얼마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항상 그 옆에서 순종으로 섬기신 어머니의 신앙 또한 제 삶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남편되는 전성걸 목사는 현재 온라인 선교교육 MEX(Mission Education by Extension)를 통해 선교사 및 지역교회의 평생 선교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MEX는 혁신형 에듀테크 기반의 양방향 온라인 개방교육 방식에 기초한 자기주도적 선교교육 플랫폼입니다. 지난여름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아들 현우는 2021년 가을학기부터는 2년간의 대학원 과정(조직/기업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우는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유원정 기자〉

새책소개

저자 강신용 목사

# "살려면 회개하라"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구원의 첫 단계 회개에 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 "살려면 회개하라"가 최근 쿰란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저자 강신용 목사(뉴욕사랑의동산교회 담임)는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서 경건의 삶을 강조"했지만 회개 없는 복음이 횡행하고 말씀은 듣되 실천은 하지 않는 요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책을 썼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또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마음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은혜의 빛으로 채워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쇠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머리말에 적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의 첫 단계인 회개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전제로 한다"며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실로 믿으려는 영혼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책은 제1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제2부 회개의 본질, 제3부 받으시는 회개, 제4부 회개의 결과들 등 4부로 나눠 1부에 1장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2장 자신의 정체를 알고 회개하라, 2부 1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2장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이 회개다, 3장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4장 불의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회개다, 3부는 1장 참된 회개만 받으신다, 2장 용서하는 자의 회개를 받으신다, 3장 받으시되 대가를 치르는 회개가 있다, 4부 1장 회개를 겸손한 사람을 만든다, 2장 회개는 환난을 멈추게 한다, 3장 회개는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한다, 4장 회개는 개인과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 등의 제목으로 전개된다.

설교가 아닌 칼럼 형식으로, 마치 회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섭렵한 듯 한 이 책이 회개가 사라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은 총 267페이지로 미국내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 aerimkang@hotmail.com

〈유원정 기자〉